

보도시점 2023. 10. 24.(화) 조간 배포 2023. 10. 23.(월) 10:00

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.

- 금융당국,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-

- 신정원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쉰 보험회사의 유사 기존계약 확인 후 보험계약 체결 가능
- 유사계약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시행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(가칭 ‘비교안내시스템’)을 구축하고,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.

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(소위 ‘업셀링’, ‘리모델링’)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*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.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.

※ 승환 :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

☞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→ “부당승환”

‘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*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,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(보험업법§97③)

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「승환 제도개선 T/F*」를 운영(‘22.3월~)하여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,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
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협회, 보험연구원, 신용정보원, 생·손보사 등

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·안내하여야 한다. 그러나,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.

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*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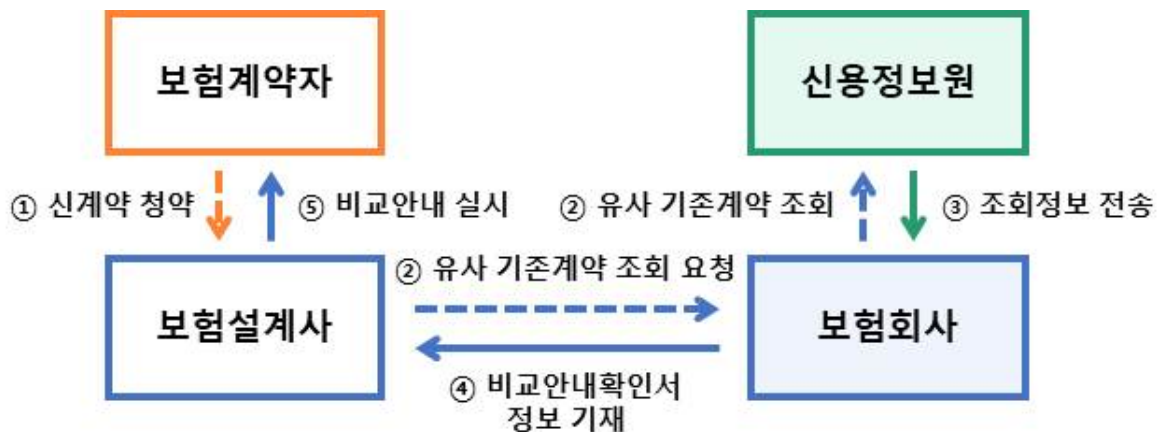
* 기존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,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

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‘비교안내시스템’을 구축한다.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.

①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.

②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.

③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.



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‘비교안내시스템’을 ’23년 12월(잠정)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.

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,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,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.

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(생명보험, 손해보험, 제3보험)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하였다.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(§1의2)에 따른 20개군*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.

* ① 생명보험 / ② 제3보험(질병, 상해, 간병 등 3종) / ③ 손해보험(화재, 해상 등 14종) / ④ 저축연금보험(저축, 연금 등 2종)

또한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다.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,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다.

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,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,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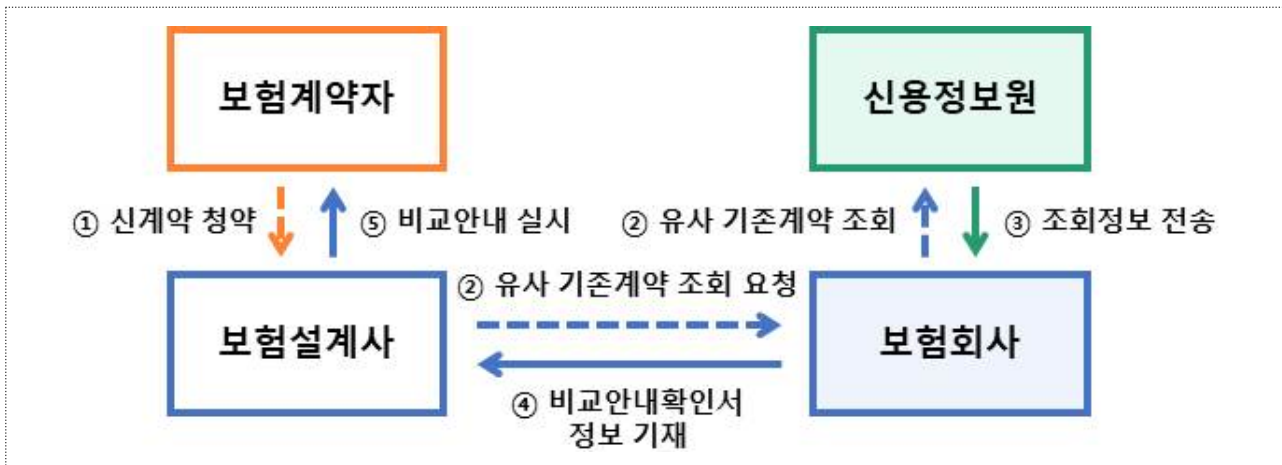
※ (참고)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치 프로세스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윤세열 (02-2100-2945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문형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김성환 (02-3145-7474)
	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인호 (02-2262-6645)
		담당자	부 장	박순근 (02-2262-6566)
	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	책임자	본부장	최종수 (02-3702-8523)
		담당자	부 장	박기준 (02-3702-8610)
	한국신용정보원 보험데이터부	책임자	상 무	방태진 (02-3705-5806)
		담당자	부 장	김진섭 (02-3705-5851)



참고

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



1단계 (보험계약자) 신계약 청약

- 보험계약자, 보험설계사에게 신계약 청약



2단계 (보험회사)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

- 보험설계사, 보험계약자(피보험자)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 징구
- 보험회사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(피보험자)의 기존계약 조회 요청



3단계 (신용정보원)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

- 신용정보원, 보험계약자(피보험자)의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송부



4단계 (보험회사) 비교안내확인서 작성

- 보험회사, 비교안내대상* 계약 확인 및 비교안내확인서에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 기재·출력

* 보험업법 시행령(§43의2)에 따른 새로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보험계약



5단계 (보험설계사)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

- 보험설계사, 비교안내확인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* 비교안내 실시

* 비교안내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(해약환급금, 공시이율 등)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 필요